



!해피 생신 할머니!

일요일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깨워서
 일어나라고 하셨다. 엄마가 차문을 열어놔서
그런지 너무 춥고 쌀쌀해서 더 이불
속으로 들어갔다. 몇분 뒤에 나는 스스로 일어났다,
엄마가 깨운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다. 오늘은
우리 외할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이었다!! (☺)♡♡
 세수를 하고 나니까 잠이 확 깼다. (☺)!!

오빠를 깨우고 우리는 배낭을 메고 나갔다. (☺) 해
 차에서 할머니 대신 익산으로 가고 있었는데,
 앞과 잘못 길을 가서 한 비키를 돌고 가서
 정말 늦게 도착했다. 그래서 할머니에게
 조금 죄송했지만 "이제 왔으니까 괜찮아!" 속으로
 생각했다. 삼촌네는 이미 다 와있어서
 우리 사촌 동생이랑 언니랑 핸드폰을 하며 놀았다.
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
 했다. 마침 배고팠는데 삼계탕을 먹어서 너무
 좋았다. 닭고기를 많이 먹고 난 뒤에
 다시 언니랑 동생이랑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,
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족스랑 라자를
 사오자고 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사오고
 얼마 뒤에 엄마가 가라고 하셨다. (☺) ㅜㅜ
 아쉬웠지만 정말 재밌었다. (할머니
 생신축하드립니다!)(♡(☺)♡)